

줄줄이 오르는 채소값... 부담 커진 장바구니

마늘, 10년래 최고가... 가격 강세에 재배면적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
양파 지난해보다 36.9% 상승 역대 최고 수준... 대파·건고추도 상승
농촌경제연구원, 양파 조생종 출하·마늘 재고량 증가에 가격 하락 전망

마늘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양파와 건고추 등 각종 양념채소 가격도 전정부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념채소 가격 상승이 외 식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

은 2만4710ha(1ha=1만㎡)로 1년 전보다 10.5% (2348ha)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4.0% 증가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수준인데, 마늘 가격 강세에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마늘(피마늘) 10kg의 도매가격은 7만371원으로 1kg 당 7000원 선을 넘어섰다.

이는 2013년 이래 10년 만에 최대 금액이다. 깬마늘의 가격도 상품기준, 8000원 선으로 평년 6500원 선보다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7263ha로 1년 전보다 2.3%(398ha) 줄었다. 양파 재배면적 감소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인건비 상승, 마늘 재배로의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양파 가격은 재배면적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1kg당 도매가격이 평균 1596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도매가격(1166원)보다 36.9% 상승했다. 건고추와 대파의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에 따르면 4

월 건고추의 가격은 전년보다 높았다. 4월 건고추(상품) 도매가격은 600g 당 1만2460원으로 평년(1만1297원)보다 10.3% 비쌌다. 대파도 kg당 1297원으로 1000원이던 평년보다 도매가격이 30%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양념채소의 가격도 평년보다 비싸면서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5월 양념채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양파의 경우 조생종 출하지 확대와 중생종 출하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깬마늘도 저장마늘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내릴 것으로 봤다. 건고추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으며, 대파의

경우에만 출하량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6079ha로 전국에서 가장 컸으며 경남(3482ha), 경북(2986ha), 전북(1751ha), 제주(135ha) 순이었다. 마늘은 경남(7519ha), 경북(5208ha), 전남(4061ha), 충남(3573ha), 제주(1251ha) 순으로 넓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마늘과 양파 모두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인건비 등을 살펴보니 양파가 마늘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면서 "마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예측이 가능하지만, 양파는 가격 변동이 커서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이데이' (5월 2일)를 앞두고 지난 28일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에서 열린 오이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오이를 들어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 신청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월 30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2023년 등급결정 평가 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농촌관광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등급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체이다. 등급결정 신청 부문은 '체험', '음식', '숙박' 등 3개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민박은 숙박 부문만 신청 가능하다. 등급결정 평가를 원하는 사업체는 등급결정 신청서,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일정을 비롯한 제출서류와 평가 기준 등 등급 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전문 누리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가 국민에게 고품질의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등급관리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월 2일은 '오이데이' 농협 광주본부, 소비촉진행사

금요직거래장터서 나눔·할인판매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28일 평동농협과 함께 '오이데이' (5월 2일)를 앞두고 오이 소비촉진행사를 가졌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성신 본부장, 최상규 평동농협 조합장, 한재규 노조위원장, 황인근 광주광역시청 농산유통팀장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금요직거래장터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오이 무료나눔행사와 할인판매를 실시했다. 특히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들뜰'이 함께 참여해 오이의 효능을 알리고 판매를 도왔으며, 지역 농산물 홍보대사로서 금요직거래장터의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홍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수출전문조직·100만달러 수출탑 수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27일 농협경제지주 주관하는 2023년 농협 수출전문조직 워크숍에서 전남지역 농협이 수출탑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진> 나주배원에농협과 광양원에농협은 2022년 우수수출전문조직으로 선정됐고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인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이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수출환경

경 악화속에서도 농협과 지자체, 수출농가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 박종탁 본부장은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애써주시는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고물가·금리부담에 따른 저성장 기조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농협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며 전남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aT, '지역먹거리계획' 대국민 무료 교육

11개 과목 6개월간 온라인강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이해' 무료 이력님(사이버교육) 과정을 개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6개월간 진행되며 지역먹거리계획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마련됐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내용은 기본, 심화, 마이크로러닝 3개 과정으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실행 ▲지역먹거리계획의 이해 ▲지역먹거리계획 우수사례(군산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등 11개 과목으로 편성했다. 강사진은 학계와 소비자 유통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로 구성했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안내 사항은 농수산식품교육원 누리집(educat.or.kr)과 유통연구소(031-400-356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